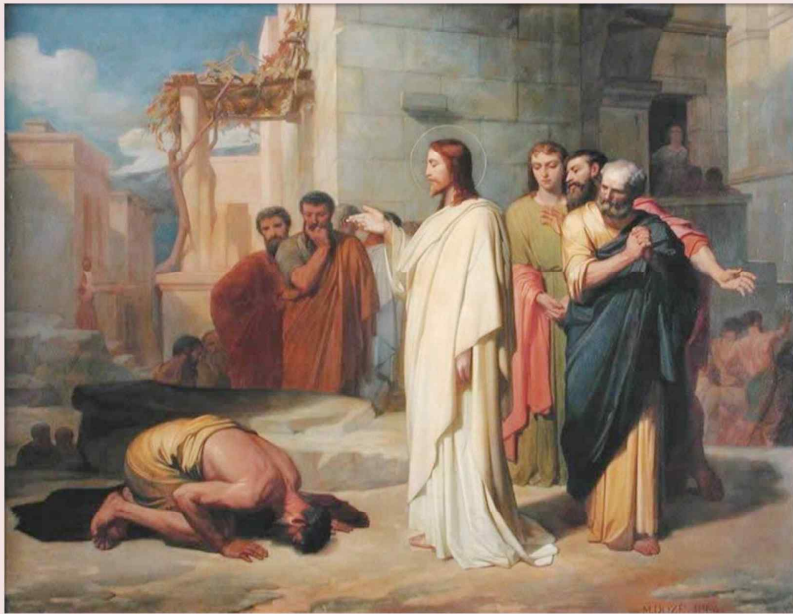




# 연중 제6주일(2월 11일)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르 1,40-45)



##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믿음과 순결의 색인 흰옷을 입고 있어 믿는 대로 된다는 말씀과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제자들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은가? 우리도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모아들여야 한다.

그림 장 마리 벨키오르 도즈 | 1864년, 유화, 135 x 105cm, 님 미술관, 프랑스.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40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님께서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42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 1,40)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포자기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마르 1,45)

주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에 감사하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가끔 뉴스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 의인들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상황에서 자신과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처한 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구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어내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자비심을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그를 가엾게 여기시어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죄의 상처로 아파하는 우리도 연민의 마음으로 측은하게 여기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주십니다. 자비는 남의 고민을 덜어 주고 싶은 마음, 남의 고통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자비는 남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 그 아픔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것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그 마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전해진다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5번 “사랑의 하느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